

숙명여자대학교  
2010년 3월 17일

## 한국어는 어떤 언어인가

이익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1. 한국어는 세계 12위의 언어다

2007년을 기준으로 한국 인구는 남한이 4,800만 명, 북한이 2,400백만 명으로 도합 7,200만 명. 이들은 거의 모두 타고나면서부터 평생 한국어를 모어(母語, mother tongue)로 사용하므로 한국어 사용자는 7,200만 명(72 million)이라 할 수 있다.

David Crystal의 *The Cambridge Encyclopedia of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에서는 1992년의 통계에 근거하여 사용자수를 6,600만 명으로 잡고 한국어의 순위를 13위로 매겼다.

Daniel Nettle and Suzanne Romaine의 *Vanishing Voices: The Extinction of the World's Languages* (Oxford University Press, 2000)에는 *Ethnologue: Languages of the World* (1996년판)에서 사용자수를 7,500만 명으로 한국어를 12위로 매긴 것을 소개하고 있다..

12위나 13위는 프랑스나 이탈리아와 맞먹는 수준이며, 5,000개가 넘는 세계 언어 중에서 보면 최상위에 속하는 수준이다. 더욱이 재외교포도 미국(210만), 중국(230만), 일본(91만), 러시아(22만), 캐나다(22만) 등지에 널리 퍼져 있고, 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우는 숫자도 근래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급격히 팽창하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은 언어 면으로는 세계 열강(列強)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 2. 한국어는 알타이어족에 속한다

한국어가 계통적으로 어느 어족(語族, language family)에 속하는가에 대해선 얼마간의 회의적(懷疑的)인 견해가 있으나 대체로는 알타이어족(Altaic family)에 속한다고 믿는다. 알타이어족에는 한국어 외에 터키어, 몽고어 및 퉁구스어(만주어)가 속한다. 일본어를 여기에 추가하기도 한다.

Korean is spoken by about 75 million people. Many scholars regard Korean and Japanese as related members of the Altaic family, but this hypothesis remains unproven. (Edward Finegan, *Language: Its Structure and Use*, Hartcourt Brace, 1999:486)

Altaic Proper (= Turkic, Mongolian, Tungus) is now widely accepted as a valid genetic group. The affiliation of Korean with this complex has also gained

considerable support, and Japanese appears to be gaining in popularity as a member of Altaic, though still in a minority position. (Merritt Ruhlen, *A Guide to the World's Languages Volume 1: Classification*,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1:130)

The possibility of an Altaic family, comprising Turkic, Mongolian, and Tungusic, is rather widely accepted, and some scholars would advocate increasing the size of this family by adding some or all of Uralic, Korean and Japanese. (Bernard Comrie의 *The World's Major Languages*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7)

In East Asia there are also two language isolates, Korean and Japanese, whose genetic affiliations to each other or to other languages (such as Altaic) remain the subject of at times heated debate. (Bernard Comrie의 *The World's Major Languages* (Oxford University Press, 1990:16)

앞에서 보듯이 한국어는 계통적으로 일본어와는 가까운 편이나 중국어와는 관계가 없다. 중국어는 Sino-Tibetan family라는 전혀 다른 어족 다 fami그러나 한국어는 중국어로부터 어휘는 많이 차용해 쓰고 있ami이들을 한자어(漢字語)라 하는데, ‘형(兄), 강(江), 산(山), 금(金), 학교(學校), 교육(教育), 외국인(外國人)’ 등 한국어에는 한자어가 매우 많다.

### 3. 한국어는 첨가어다

언어를 굴절(inflexion)의 양식에 따라 분류하면 한국어는 첨가어(agglutinative language)에 속한다. ‘읽다’를 예로 보면 다음처럼 어미변화(語尾變化)가 활발하고 그러면서도 그 문법요소가 분명하게 분석된다.

(1) 읽-는다/읽-느냐/읽-어라/읽-자/읽-으면/읽-으니/읽-어도/읽-지만/읽-을수록/읽-고/읽-어서/읽-고자/읽-도록/읽-는/읽-을/읽-었-다/읽-더-니/읽-겠-다/읽-으시-지-요

조사(助詞)도 발달되어 있다. 조사는 몇 개 겹쳐서 쓰이기도 한다.

(2) ㄱ. 책-이, 책을, 책-의, 책-에, 책-에서, 책-으로, 책-은, 책-과, 책-도, 책-만,  
책-부터, 책-조차  
ㄴ. 책-만-을, 책-에-도, 책-과-의, -책-에서-조차

한국어의 이러한 특징은 어미변화가 없는, 그래서 한 단어가 대부분 한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는 중국어나 베트남어 등의 고립어(isolating language)와 구별된다. 또 어미변화가 있더라도 한 형태에 여러 종류의 문법요소가 영겨 있는 굴절어(inflexing language)와도 구별된다. 라티어의 amo의 o는 1인칭 단수, 능동, 평서법의 세 기능을 동시에 나타내 주는데 한국어는 ‘읽-으시-겠-지-요’의 ‘-으시-’ ‘-겠-’ ‘-지’ ‘-요’의 각 요소들이 하나씩 명확하

게 분석된다.

조사와 어미가 워낙 세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중에는 외국어로는 번역하기 어려운 미묘한 의미들을 나타내는 것들이 많다.

- (3) 가. 다혜가 민요를 불렀어요.  
나. 다혜는 민요를 불렀어요.
- (4) 가. 올겨울은 왜 이리 춥니?  
나. 올겨울은 왜 이리 춥지?  
다. 올겨울은 왜 이리 추울까?
- (5) 가. 빨리 읽어!  
나. 빨리 읽지!  
다. 빨리 읽으라니까!  
르. 빨리 읽으라고!

#### 4. 한국어는 SOV 언어다

언어를 어순(語順, word order)을 기준으로 유형론적인 분류(typological classification)를 하면 한국어는 SOV 언어에 속한다. 즉 ‘주어(subject)-목적어(object)-서술어(verb)’의 어순을 취한다. SVO 언어인 영어와 비교하면 서술어가 문장 끝에 온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 (6) 가. 한국어를 공부한다  
나. 한국어를 공부하니?  
다. 한국어를 공부해라.  
르. 한국어를 공부하자.

SOV 언어로서 부수되는 몇 가지 특징이 더 있다. 첫째, 조사나 어미 등의 문법적 요소들은 뒤에 덧붙는다. 영어 등의 전치사(前置詞)와 같은 용어와 관련시켜 이름을 붙인다면 이들은 후치사(後置詞)라고 할 만하다.

둘째 앞의 예문 (6)에서 보듯이 중요한 문법 현상이 문장 끝에서 이루어진다. 셋째, 부정문도 문장 끝 쪽에서 만들어지는 일이 많다.

- (7) 가. 그때는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나. 그때는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어요.
- (8) 가. 용돈이 넉넉하니?  
나. 용돈이 넉넉하지 못하니?

넷째, 꾸미는 말이 앞에 오고 그 꾸밈을 받는 머리(head) 요소가 뒤에 온다.

- (9) 가. 좁은 골목

ㄴ. 우리가 가장 자주 부른 노래

다섯째,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범위가 큰 것일수록 앞에 놓인다. 인명에서 성(姓)이 앞에 놓이는 것도 같은 원리다.

- (10) ㄱ.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219번지 송파아파트 218동 501호  
ㄴ. 숙명여자대학교 국문학과 3학년 1반 윤정혜  
ㄷ. 2010년 3월 17일 오후 2시 20분 30초

### 5. 한국어는 어순이 비교적 자유롭다

기본적으로는 ‘주어-목적어-서술어’의 순서를 지키지만 한국어의 어순은 유연성이 있다. 이는 어순이 바뀌어도 조사가 각 단어의 문장성분(文章成分)을 알게 해 주기 때문이다.

- (11) ㄱ. 누가 정혜를 기다리고 있니?  
ㄴ. 정혜를 누가 기다리고 있니?  
(12) ㄱ. 총장이 학생들에게 이 소식을 직접 전달하였다.  
ㄴ. 총장이 이 소식을 학생들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ㄷ. 이 소식을 총장이 학생들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 6. 한국어는 주어가 잘 생략되는 특징이 있다

주어는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한국어에서는 그것이 표면에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다. 의미 전달에 혼란이 없을 때는 주어를 생략하는 것이다.

- (13) ㄱ. 그 영화 봤니?  
ㄴ. 아직 못 봤어.  
ㄷ. 나 보기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눈물 아니 흘리오리다.

따라서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할 때는 숨어 있는 주어를 찾아내어 번역해야 하고, 반대로 외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그쪽 주어를 그대로 다 번역해 놓으면 자연스럽게 못한 한국어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생긴다.

### 7. 한국어에는 의성어와 의태어가 많다.

소리를 흉내내는 의성어(擬聲語, onomatopoeia)나 모양을 흉내내는 의태어(擬態語)는 어느 나라 말에나 많이 있지만 한국어는 모음이나 자음을 조금씩 바꾸어 어감(語感)을 달라하는 것들이 많아 유난히 이들 단어가 풍부하게 발달되어 있다.

- (14) ㄱ. 뻘뻘뻘, 피뻘뻘, 뻘뻘뻘, 멍멍, 꿀꿀, 따르릉따르릉, 부릉부릉  
 ㄴ. 풍당풍당/풍덩풍덩, 찰싹찰싹/철썩철썩, 소곤소곤/수근수근, 깔깔/겉겉  
 달그락달그락/덜그럭덜그럭  
 ㄷ. 종알종알/중얼중얼/쫙알쫙알/쫙얼쫙얼/쪄얼쪄얼
- (15) ㄱ. 반짝반짝/번쩍번쩍, 꼬불꼬불/꾸불꾸불, 방글방글/빙글빙글, 아장아장/어정어정,  
 출랑출랑/출렁출렁, 보슬보슬/부슬부슬  
 ㄴ. 강중강중/경중경중/깡충깡충/경충경충,  
 감박감박/깜빡깜빡/검벽검벽/검뻘검뻘/끔벅끔벅/끔뻘끔뻘  
 ㄷ. 하하/허허/호호/후후/해해/헤헤/히히

**(8) 한국어는 경어법이 발달되어 있다.**

한국어는 세계 언어 중에서 경어법(honorific system)이 가장 복잡하게 발달되어 있는 언어이다.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어렵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개 이 복잡한 경어법이 그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 경어법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뉜다. 첫째 주어를 높이는 경어법이다. 이때는 주어에 딸린 것도 높이는 경우가 많다. 서술어에 ‘-시-’를 넣을 뿐 아니라 단어도 달리 써야 하기도 하며 명사에 ‘-님’이나 ‘-분’을 붙여야 하는 등 지켜야 할 규칙들이 많다.

- (16) ㄱ. 너는 말을 참 빨리 하는구나.  
 ㄴ. 너희 선생님은 말씀을 참 빨리 하시는구나.
- (17) ㄱ. 나이가 적은 저 아이는 집이 어디니?  
 ㄴ. 연세가 많으신 저분은 댁이 어디시니?
- (18) ㄱ. 창호가 오늘은 밥을 먹고 곧바로 자는구나.  
 ㄴ. 할아버지께서 오늘은 진지를 잡수시고 곧바로 주무시는구나.

경어법의 다른 한 종류는 말을 듣는 사람을 높이는 경어법이다. 앞의 주어경어법은 두 단계로만 나뉘는데 여기는 여러 단계의 등급이 있다.

- (19) ㄱ. 고맙다/ 지금 몇 시니? / 거 누구니? (해라체)  
 ㄴ. 고마워/ 지금 몇 시야? / 거 누구야? (해체/반말체)  
 ㄷ. 고맙네/ 지금 몇 시인가? / 거 누군가? (하계체)  
 ㄹ. 고맙소/ 지금 몇 시오? / 거 누구요? (하오체)  
 ㅁ. 고마워요/ 지금 몇 시예요? / 거 누구예요? (해요체)  
 ㅂ. 고맙습니다/ 지금 몇 시입니까? / 거 누구십니까? (합쇼체)
- (20) ㄱ. 네가 먼저 앉아라.  
 ㄴ. 네가 먼저 앉아.  
 ㄷ. 자네가 먼저 앉게.  
 ㄹ. 당신이(김 과장이) 먼저 앉아요.

ㄹ. 어르신께서(과장님께서) 먼저 앉으십시오.

경어법의 마지막 종류는 목적어 등을 높이는 종류로서 오늘날은 아주 한정된 용법으로만 쓰이고 있다.

- (21) ㄱ. 너는 정미한테 크리스마스 선물로 뭘 주었니?  
    ㄴ. 너는 부모님께 크리스마스 선물로 뭘 드렸니?
- (22) ㄱ. 저는 동생을 데리고 왔어요.  
    ㄴ. 저는 할머니 모시고 왔어요.
- (23) ㄱ. 친구 만나고 오는 길이야. 언제 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  
    ㄴ. 선생님 뵈고 오는 길이야. 언제 또 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 9. 한국어의 문법 현상은 어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많다

앞의 예문 (6)에서 서술문, 의문문, 명령문 등의 문장형(sentence type)이 어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이미 보았다. 또 예문 (4)와 (5)에서 문장형을 나누는 그 이상의 기능도 하는 것을 보았고 경어법에서도 어미가 결정적인 일을 담당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어미는 이 외에도 시제(tense)를 비롯해 복문(complex sentence)을 만드는 일 등 여러가지 문법적 기능에 관여한다.

- (24) ㄱ. 구경꾼들이 다 즐겁게 웃었다.  
    ㄴ. 구경꾼들이 다 즐겁게 웃겠다.  
    ㄷ. 구경꾼들이 다 즐겁게 웃더라.
- (25) ㄱ. 구경꾼들이 다 즐겁게 웃는 연극이야.  
    ㄴ. 구경꾼들이 다 즐겁게 웃을 연극이야.  
    ㄷ. 구경꾼들이 다 즐겁게 웃던 연극이야.
- (26) ㄱ. 우리는 구경꾼들이 다 즐겁게 웃기를 바랐다.  
    ㄴ. 구경꾼들이 다 즐겁게 웃었음이 밝혀졌다.
- (27) ㄱ. 구경꾼들도 웃고 우리도 웃었어.  
    ㄴ. 구경꾼들이 즐겁게 웃으니 마음이 놓인다.  
    ㄷ. 구경꾼들이 즐겁게 웃으면 배우들은 점점 더 신을 냈다.  
    ㄹ. 구경꾼들은 웃었지만 우리는 웃을 수 없었다.

※ 이상의 내용에 대해 좀더 상세한 것은 다음 문헌들을 참고하기 바람.

이익섭 · 이상익 · 채완 (1997) 『한국의 언어』. 신구문화사.

이이섭 (2005). 『한국어 문법』. 서울대학교 출판부.

Iksop Lee and S. Robert Ramsey (2000). *The Korean Languag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부록 ※

## The Korean Writing System : *Hangul* (한글)

Iksop Lee (이익섭)

We Koreans have a special holiday known as *Hangul-na*(한글날), that is, Korean Alphabet Day, which is celebrated each year on October 9th. This holiday is an indication of how proud we Koreans are of this writing system, which is uniquely our own. We believe it is, as the Englishman Geoffrey Sampson (1985: 120) has pointed out, the world's best alphabet. Hangul is, in fact, very scientific, very systematic, and extremely functional. Furthermore, it has a unique history. Let us go into the wonderland of 한글.

1. The Korean alphabet is unusual in that there is historical documentation of its invention. In Volume 102 of the *Annals of King Sejong*<sup>1)</sup> (세종실록 世宗實錄), the entry for the 12th month of Sejong's 25th year (1443 AD) reads as follows:

是月 上親制諺文二十八字 ... 2) 是謂訓民正音

(This month, His Highness personally created the twenty-eight letters of the Vernacular Script. ... These are called the *Hunmin chongum* (훈민정음), that is, “the Correct Sounds for the Instruction of the People”.)

There is another document called *Hunmin chongum* (訓民正音)<sup>3)</sup> published in the first part of the 9th lunar month, AD 1446, which gives us the same information in its postface.

---

1). King Sejong, the fourth monarch of the Choson dynasty, is today the most respected figure in Korean history. He is usually referred to as ‘세종대왕 (世宗大王)’, that is, Sejong the Great. His name is revered and remembered in countless ways in modern Korea. We see it memorialized in Sejong Street, Sejong Center, Sejong University, Sejong Research Institute, and so on. You can see his portrait on the highest denomination bill in Korea.

2). ( ... 分爲初中終聲 合而後乃成字 凡于文字及本國俚語皆可得書 字雖簡要 轉換無窮)

‘(Its letters) are divided into initial, medial, and terminal sounds. Once one combines them they form a syllable (sound). All [sounds] in both Chinese characters and in the native language of this country may be written. Although they are simple and essential, they shift and change [in function] without end.’

3). This document, which carried as its title the name of the new writing system itself, was written by some scholars from the Academy of Worthies (집현전 集賢殿) commissioned by Sejong.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 alphabet was first revealed here. It presented a scholarly treatise on the principles and theories that underlay the new writing system. We believe that it was with the publication of this <훈민정음> that the new script was made known to the world.

癸亥冬 我殿下創制正音二十八字 ..... 名曰訓民正音

(In winter of Kehay, our monarch originated and designed the 28 letters of Correct Sounds, and ... he named them "The Correct Sounds for the Instruction of the People.")

Most of the writing systems of the world were developed over long periods of time, and even were it true that they were invented by someone at some particular point in time, the circumstances usually can no longer be known. That is the situation to which Coulmas(1989:3) was referring in the following passage:

Of course it (writing) was not invented in the sense that one day someone decided that writing was what was needed, and sat down at a desk to invent it.

However, that is exactly what did happen in the case of the Korean alphabet. 한글 is a unique writing system in the sense that there are exact records of its invention. It is also for this reason that the users of the system memorialize the invention with a holiday.

2. The invention of the Korean alphabet was based on a unique design principle for the letter shapes. The 28 letters of the Korean alphabet were not created by designing each letter separately. Rather, the letters were produced in a two-stage process, in which a number of basic letters were designed first, then the remaining letters were derived from these basic shapes. Of the 17 consonant letters, five were created as the basic letters. Each of these five basic letters stood for a consonant pronounced at one of the five basic places of articulation. The 12 remaining consonant letters were derived from these basic shapes by adding strokes.

ㄱ → ㅋ  
ㄴ → ㄷ → ㅌ ( ㄷ → ㄹ )  
ㄹ → ㅂ → ㅃ  
ㅅ → ㅆ → ㅈ ( ㅅ → ㅊ )  
ㅇ → ㆁ → ㆏ ( ㅇ → ㆏ )

The authors of <훈민정음> explained that each time a stroke was added the sound became more severe, while the type of consonant remained the same. This addition of a stroke increased what they called the "severity of sound."

The 11 vowel letters were produced according to a similar process. Three were the basic symbols; ㅏ, ㅓ, ㅗ. The eight remaining vowel symbols were devised by combining ㅏ with ㅓ or ㅗ.

ㅏ + ㅓ → ㅑ                      ㅏ + ㅗ → ㅓ  
ㅏ + ㅗ → ㅓ                      ㅏ + ㅓ → ㅑ

$\cdot + - \rightarrow \top$                        $\cdot + \top \rightarrow \pi$   
 $\cdot + \downarrow \rightarrow \downarrow$                        $\cdot + \downarrow \rightarrow \downarrow$

As a result, the Korean alphabet became a writing system in which parts of unit symbols represent what can be analyzed as features of sounds. In other words, one part of a letter has the function of representing certain phonological information. For example,  $\rightleftharpoons$  is a single letter, but one of the strokes that compose it is an element representing the phonological feature of aspiration. Similarly, vowels such as  $\updownarrow$ ,  $\downarrow$  are also single letters, but one of their strokes represents the semivowel [y].

No other system of writing in the world does that. In his classification of the writing systems of the world, Sampson (1985) sets up a completely new and separate category, called “featural writing”, solely to classify 한글 as illustrated in the following fig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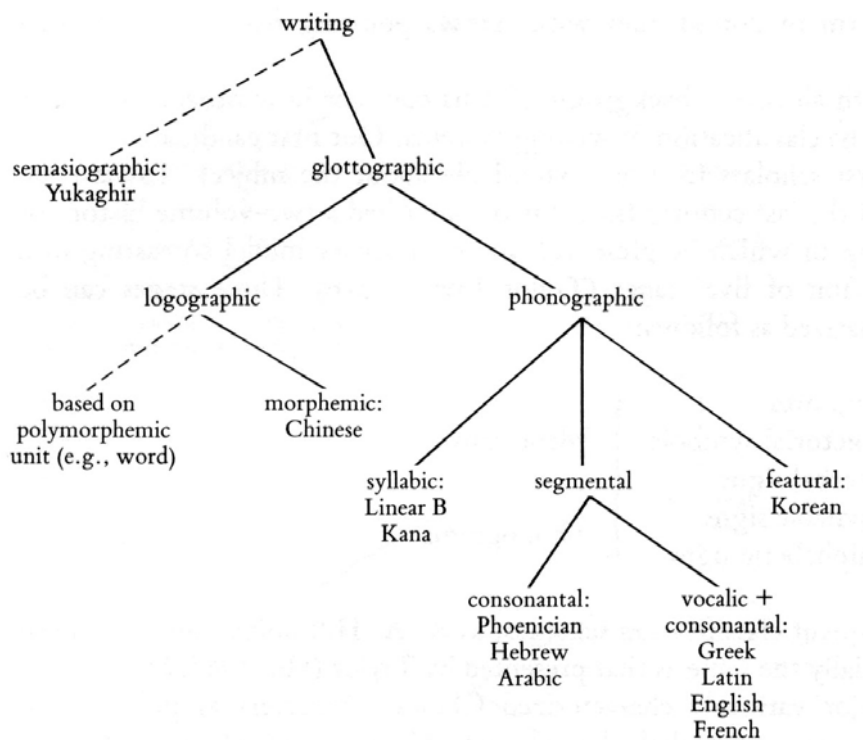


Figure 11. Sampson Writing Classification Scheme

(DeFransis 1989: 6)

3. The design principle of the basic letters is unique among the writing systems of the world. First, the shapes of the five consonant letters were based upon the organs of articulation pronouncing the consonants. The explanations given in the

*Chaejahae*(制字解) section of <訓民正音> are as follows:

牙音 ㄱ 象舌根閉喉之形  
 舌音 ㄴ 象舌附上顎之形  
 唇音 ㅁ 象口形  
 齒音 ㄷ 象齒形  
 喉音 ㅇ 象喉形

( The molar (velar) sound ㄱ[k] depicts the outline of the root of the tongue blocking the throat. The lingual (alveolar) sound ㄴ[n] depicts the outline of the tongue touching the upper alveolar ridge. The labial sound ㅁ[m] depicts the outline of the mouth. The dental sound ㄷ[s] depicts the outline of the tooth. The laryngeal sound ㅇ[∅] depicts the outline of the throat.)

The concept of patterning the shapes of letters on the speech organs is extraordinary. The Korean alphabet is often said to be a scientific writing system, and it is. The descriptions of the articulatory gestures used in the pronunciation of ㄱ and ㄴ are particularly worth notice in this regard.



Fig. 75. Tongue-position of Cardinal ㄱ.

(Jones 1957: 171)



Fig. 74. Position of Tongue and Soft Palate for English n.

(Jones 1957: 169)

The shapes of the three basic vowel letters were based upon rather philosophical concepts instead of linguistic principles. They were constructed to symbolize the natural pattern of the *three great powers* (三才) of the Confucian universe: Heaven, Earth, and Man (天地人). The explanations are as follows:

ㅏ ... 形之圓 象乎天也  
 ㅓ ... 形之平 象乎地也  
 ㅗ ... 形之立 象乎人也

- ㄱ ... The roundness of the outline is a depiction of Heaven.
- ㅡ ... The flatness of the outline is a depiction of Earth.
- ㅣ ... The uprightness of the outline is a depiction of Man. )

4. Next, as another of Hangeul's distinguishing features, let us take another look at the clustering of symbols. Hangeul orthography is unlike that of any other alphabet. The letters are not written one after the other in a line; rather, they are grouped together into syllables as follows.

ㄴ ㅏ ㅍ ㅓ    →    나무  
 ㅎ ㅏ ㄴ ㅓ ㅡ ㄹ    →    한글

This method of writing Hangeul is one that has been used ever since the invention of the alphabet. The letters were certainly phonemic (that is, alphabetic), but they were also designed to fit into syllables. First of all, the forms of the vowel were made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consonants, and the shapes of all were designed with syllabic writing as a pre-condition. King Sejong and his assistants took great pains to explain these conventions carefully and in detail because of the special way the symbols had to be used. One of these explanations reads as follows.

初中終三聲 合而成字 ... 中聲即圓者橫字在初聲之下 一 ㅏ ㅓ ㅍ ㅓ  
 是也 縱者在初聲之右 ㅏ ㅏ ㅏ ㅏ 是也 ... 終聲在初中之下

( The three sounds, initial, medial, and terminal, combine to complete the letter (syllable). ... Among the medial sounds (letters), the round one and horizontal ones stand below the initial sounds (letters); these are ㅏ, ㅡ, ㅓ, ㅓ, and ㅓ. ... The vertical ones stand at the right of the initial sound(letter); these are ㅏ, ㅏ, ㅏ, ㅏ, and ㅏ. ... The terminal sounds (letters) stand below the initial and the medial. )

The influence of Chinese characters in this syllabic design was apparent, and indeed, it could hardly have been otherwise. Practical considerations might also have reinforced the conformity of the Korean writing system to the Chinese character. In texts of the time, Chinese characters and alphabetic writing were customarily mixed together.

In any event, this *combining of alphabet with syllable cluster* (모아쓰기) has resulted in an extremely unusual kind of writing. When making typeface the word '한글' requires that two type keys be made, one for '한' and one for '글'. In making the computer code for 한글, too, a controversy has arisen over whether to conduct the code around composites of the letters or around complete syllables. If coding is done for complete syllables, the units of input would be shapes like '한', '글' and '값'. This kind of controversy, which probably exists only in Korea, arises completely out of the two-level, double-unit orthography found in 한글. In a word,

the clustering of symbols into syllables is the most salient feature of 한글, and the factor most important in determining its use.

This method of clustering (모아쓰기) is one that has sometimes come under criticism. Most negative views take as their basis the point that it is a hindrance to mechanization. If the letters of 한글 were arranged linearly (풀어쓰기) the way Roman letters are, only 40 letters would have to be kept in printer's fonts. However, in Korean print shops today the number of print keys -- that is, movable letters representing syllables -- that have to be prepared for printing can reach as many as 2,500. The method of clustering has also proved inconvenient in the construction of the computer code as pointed out above.

Still, in attempting to evaluate a writing system, one very important factor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first. Most critics, either Eastern or Western, have assumed the point of view of the writer when evaluating writing and orthography. However, this is a mistake. It is not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writer, but of the reader, that a writing system must be judged. A work is written by one, or at most, three or four people; but when printed, that same work can be read by many thousands.

For this reason, I think the syllabic system (모아쓰기) used in 한글 orthography is marvelously well adapted to the Korean language. Because Korean is an agglutinative language in which particles and suffixes are added one after the other to a stem, there are a very large number of inflected forms, and in on-line writing (풀어쓰기) it can often be difficult even to distinguish where one inflectional form ends and another begins. Grouping the letters into syllables is an effective solution to this problem. Let us compare the following examples:

- (a). ㄴ-ㄹ-ㄱ-ㄴ-ㄴ-ㄷ ㅏ, ㄴ-ㄹ-ㄱ-ㄴ-ㄹ-ㄷ ㅏ, ㄴ-ㄹ-ㄱ-ㅏ ㅏ ㅏ ㅏ
- (b). 늙는다,      늙으면,      늙었다
- (c). 늙는다,      늙으면,      늙었다

In (c), the stem of the verb '늙-' has a consistent visual form. In this case, the word (morpheme) is more easily recognized by the reader than when it has a changing shape, as in (b)-- and far more quickly perceived as a unit than in the on-line writing of (a).

4. To summarize, King Sejong the Great, a monarch who richly deserves the title "Great," designed a simple and efficient writing system for the Korean people that was like no other, and that is still unique. Whatever else is said or claimed about it, the invention of the Korean alphabet will always be counted among the most remarkable events in the long history of writing on this planet.

## Bibliography

- 강신항(1987). 훈민정음 연구.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이기문(1963). 국어 표기법의 역사적 연구. 서울: 한국연구원.
- \_\_\_\_\_(1972). 개정 국어사 개설. 서울: 민중서관.
- \_\_\_\_\_(1993). 훈민정음 親制論. 한국문화 13.
- 이익섭(1986/2000). 국어학 개설. 서울: 학연사.
- \_\_\_\_\_(1992). 국어 표기법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_\_\_\_\_.이상억·채완(1997). 한국의 언어. 서울: 신구출판사.
- \_\_\_\_\_(1998). 국어 사랑 나라 사랑. 서울: 문학사상사.
- 최현배(1937). 글자의 혁명. 문교부.
- \_\_\_\_\_(1961). 한글갈. 정음사.
- Chao, Y.R. (1968). *Language and Symbolic System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ulmas, F. (1989). *The Writing Systems of the World*. Oxford: Blackwell.
- \_\_\_\_\_. (2003). *Writing Systems: An Introduction to their Linguistic Analys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eFrancis, J. (1989). *Visible Speech: The Divers Oneness of Writing Systems*. University of Hawaii Press.
- Gelb, I. J. (1963). *A Study of Writing*. Rev. e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Jones, D. (1957). *An Outline of English Phonetics*. Cambridge: Heffer & Sons.
- Lee, I. and S. R. Ramsey(2000). *The Korean Language*. New York: SUNY Press.
- Sampson, G. (1985). *Writing Systems*. Stanford University Press.
- Taylor, I. (1980). "The Korean Writing System: An Alphabet? A Syllabary? A Logography?" In Kolers, P.A., M.E., Wrostad and H. Bouma, eds (1980). *Processing of Visible Language 1*. New York: Plenum Press.